

〈정왜기공도병〉 속 이순신의 노량대첩

이 정 수

2011년 봄날, 나는 그림 공부에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관련 그림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왜기공도병(征倭紀功圖屏)〉은 명나라 파병군의 관점에서 그린 ‘왜구 정벌 기념 병풍’이었기에 내 연구주제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박물관에 유물열람을 신청했다.

못내 그리던 〈정왜기공도병〉을 마주한 게 2014년 4월 7일 오전이었다. 병풍의 속살을 상상하니 두근거렸다. 보자마자 높이 1m 50cm와 폭 3m를 훌쩍 넘기는 장대함에 압도됐고, 황갈색 화면에 뿌려진 화려한 금가루에 황홀했다.

들뜬 마음을 가다듬고, 전체 6폭을 꼼꼼히 살폈다. 정중앙의 넓은 바다는 ‘ㄱ’자 모양으로 화면을 가르고, 육지는 좌·우·아래에 섬처럼 떠있었다. 친절하게도 각 장면에는 검정 글씨의 설명도 붙어있었다. 내용은 1598년을 전후해 벌어진 정유재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중심 모티브로 한다. 4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첫째 순천 왜성에 주둔한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수륙으로 공격하고, 둘째 노량에서 일본 전함을 침몰시키고, 셋째 남해도에 숨어든 왜구 잔당을 평정하고, 넷째 조선 왕경과 명 조정에서 승전 축하를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병풍 그림은 내가 실제 그 날 그 장소에 있는 듯 ‘현장감’이 넘쳤다. 당시 명나라 장군 유정(劉綎)이나 수군 대장 진린(陳璘)이 소속 부대 종군화가들에게 직접 스케치를 하도록 명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번째 폭에 있는 글귀 「부장 등자룡 조선 통제 이순신 몰진(副將 登子龍 朝鮮 統制 李舜臣 沒陣)」에 온 몸이 전율했다. 명나라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라는 뜻인데, 옆에 「노량대첩(露梁大捷)」이란 묵서도 있으니 확실했다. 조선 후기 민우수(1694-1756)는 『정암집』에서 충무공의 노량대첩이 그러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여겼는데(恨不令畫師寫出忠武公露梁大捷圖), 이순신의 활약이 담긴 노량해전 그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랍고 신기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순신의 노량해전을 그린 전쟁 기록 그림은 〈정왜기공도병〉이 유일하다.

열람 후 촬영 이미지를 살살이 살피고 관련 자료들을 찾고 머리를 쥐어짜며 골몰했다. 하지만 현장 답사가 빠진 병풍 분석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버르고 별러 2015년 7월 18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답사를 떠났다.

이번 답사의 목표는 노량해전의 현장으로서 〈정왜기공도병〉의 배경이자 정유재란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했던 장소들이다. 노량 앞바다는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사천의 정중앙에 위치해있다. 이를 중심으로 조선·명나라 연합군과 왜군 사이 최후 혈전의 유적지인, 순천왜성-창선도-장량상동정마애비-남해왜성-관음포의 순서로 답사를 떠났다.

18일 첫날 오후 5시 5분 순천왜성(順天倭城)에 도착했다. 다행히 해가 길어 2시간 동안 둘러볼 수 있었다.

왜성전문가 오오타 히데하루에 따르면, 왜성(倭城)이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 왜군이 경남 남해안 일대에 쌓은 일본식 성을 말한다. 전남 순천과 울산 사이의 전략적 거점 중 바다 쪽으로 돌출된 땅에 축조됐고 현재 30개 성터가 남아있다. 여러 겹의 외부 성곽과 중심 성곽이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인데, 고층 목조건물인 천수각(天守閣)에서는 성내와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왜군 장수의 지휘소로 활용됐다.

이 특성을 충실히 따라 구축된 순천왜성에는 정유재란 막바지 고니시 유키나가 주둔했다. 임진왜란 선봉장으로서 동래성을 함락하고 평양성까지 점령했던 장수로 유명한 이 고니시를 토벌하려고, 명나라 유정과 진린·이순신 연합 부대는 육지와 바다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정왜기공도병>은 그 전투 장면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어 ‘시각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순천왜성은 병풍에 그려진 것처럼 성 주변을 휘도는 물길인 해자(垓子)가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었고, 성을 따라 올라가니 높이 2m이상의 석축들이 곳곳에 말끔히 정비돼있었다. 사천왜성처럼 정문까지 복원된 것은 아니었어도, <정왜기공도병>과 같이 광대하고 미로 같은 순천왜성에서 우글거리던 왜군을 떠올리기엔 충분했다. 각 구역마다 안내판도 있어 발걸음을 땀수록 몰입감이 증폭됐다.

등에 땀이 나게 걸어 천수각 터에 올랐다. 아파트 7층 창문에서 길바닥을 내려보는 기분이 들어 떨어질까 겁이 났다. 이 수직의 석축에 우뚝 솟은 천수각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로로 끌려가던 강항(姜沆)처럼 위압감에 주눅 들었을 것이다. 순천왜성이 이렇게 거대했으니 맹공을 버텨낼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배가 떠있던 넘실대는 앞바다를 볼 수 없어 씁쓸했다. 앞바다는 전부 땅으로 메워져 제철공장 등이 입주한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안골포 왜성 앞바다에서 무수한 컨테이너 박스를 봤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뿔나무 받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상전벽해를 몸소 체험했다.

사실 역사 기록은 <정왜기공도병>과 상반된 측면도 있다. 이 순천왜성 전투에서 고니시는 억척스럽게도 결국 버텨냈다. 기운이 소진된 진린과 이순신이 그 일대 해역을 완전 봉쇄하자 전황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1598년 8월 18일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다. 이 소식은 삼시간에 조선땅까지 퍼졌고 실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일본군 전 병력 철수를 명령한다.

이때 ‘고니시 구출大作전’이 벌어진다. 순천에 고립된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주둔 중이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를 포함한 수많은 왜장들이 일본군 전함 500척의 닻을 올렸다. 이 첩보를 접한 진린과 이순신의 연합 수군도 하동과 남해 사이 노랑 앞바다에 진을 쳤다. 드디어 1598년 11월 19일 새벽 양 측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 혼란을 틈 타 고니시는 여수

해역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갔던 것이다.

7월 19일 여행 이틀째엔 노량해전의 무대 곳곳을 답사했다.

9시 무렵 남해도에서 창선교를 통해 창선도(昌善島)로 들어갔다. 이 섬에 오니 겁에 질려 창선도로 황급히 도망쳐 온 왜군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노량해전 중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카바야마 히사타카(樺山久高)와 병사 500명은 남해도로 숨어들었다. 은신처로 찾은 남해왜성은 텅 비어있었지만, 다행히 운 좋게 발견한 작은 배를 타고 가까스로 창선도까지 도망쳤다. 조·명연합군의 서슬 퍼런 눈을 피해 어렵사리 거제도까지 연락이 닿아 겨우 살아서 주군 시마즈 요시히로를 만났다고 일본인 학자 구로다 케이이치는 얘기한다.

오후 1시경 남해도(南海島)로 돌아가 선소리 남해왜성 아래 해안 절벽 앞에 섰다. 그곳에는 남자 키 2배도 넘는 거대한 장량상 동정 마에비(張良相東征磨崖碑)가 있다. 이 비는 노량해전 직후 텅 빈 남해왜성을 점령했던 명나라 진린의 휘하 장수 장량상이 왜구 정벌을 자축하며 바위에 새긴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파괴 비석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는 데, 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남원 황산대첩비처럼 실제로 폭파됐다면 명나라 군사들이 정유재란 승리를 기념하며 새긴 ‘유일한 마에비’가 남해바다의 모래알이 될 뻔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10분, 남해왜성(南海倭城)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림 속에서 위세 넘치던 성곽은 콩·고구마·고추·도라지 밭이 되어버렸고 석축만이 남아있었다. 천수각 터도 잡목이 울창했다. 이 남해왜성에는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부대가 노량해전에 출진할 때까지 주둔했고, 〈정왜기공도병〉에 적힌 「남해탕평(南海蕩平)」처럼 노량해전 후에도 명나라 군이 왜군 잔당을 섬멸하려고 머물렀던 곳이다.

남해왜성에서 차로 20여분을 달려, 오후 4시 34분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지에 도착했다. 조성 중인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 구조물에 적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란 글귀를 보고 충무공 순절지에 왔음을 실감했다.

조선 왕릉처럼 정갈하게 깔린 전돌 위를 경건히 걸어가 「충무이공순신유허비」에 숙연히 목례했다. 이순신의 8대손 이항권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여 충무공 순절지에 비석조차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국왕 순조에게 청해 사당과 비석을 세운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240년이 지나 4번째 임진년인 1832년이 되어서야 순절지에 비석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가. 해남·여수의 대첩비와 순천·남해·고금도의 사당에 건립된 비석과 비교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추모와 존숭은 임진왜란 후 6번째 임진년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제대로 이뤄졌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관음포 「충무이공순신유허비」의 비각에 「대성운해(大星隕海)」라는 현판을 써 걸었다. 이외에도 아산 현충사 성역화 사업은 196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완성됐다. 1968년 4월 27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건립이나 1973년 10월 30일 충무공 국가표준영정을 지정해 전국에 배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13년 『난중일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재는 이순신을 기리고 알리는 매우 가치있는 성과였다. 나도 뿔 듯이 기뻐다.

비각 오른쪽으로 난 소나무 숲을 걸어 1991년에 세워진 첨망대(瞻望臺)에 도착했다. “전망대도 아니고 첨성대도 아니고 뭐지?”라고 가웃거리며 누각에 오르니 노랑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정왜기공도병〉에 그려진 1598년 11월 19일 그날의 전투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망망대해로 그려졌던 병풍에서와 달리, 이 좁디좁은 해역에 뻗뻗하게 들어찬 양측 함선들은 서로 뒤엎키고 불길에 휩싸인 격렬한 혈전을 벌였다. 그 긴박한 순간 날아든 총탄에 충무공은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날 산화한 명나라 군사들을 비롯해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낙안군수 방덕룡, 고득장 등의 조선 장수들과 이름없는 병사들도 잊지 말아야 할 영혼들이다. 먹먹한 가슴이었다.

그리고 보니 ‘첨망’이라는 낱말이 이해가 된다. 첨망은 ‘고인이 된 선현을 우러러 떠올리며 먼 곳을 바라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충무공과 호국영령들의 우국충정을 떠올리며 노랑 앞바다를 경건하게 바라보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첨망대가 있는 이곳 관음포(觀音浦)란 지명은 충무공의 순절지에 잘 어울리는 듯하다. 해군사관학교 이민웅 교수의 분석처럼 이순신 장군의 리더쉽은 칠천량에서 거의 전멸 당한 수군을, 통제사 복귀 후 정예병으로 탈바꿈시켜 12척으로 명량대첩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 또 농토가 비옥한 전략적 요충지인 고금도(古今島)로 통제영을 옮겨, 두려움에 흩어져있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찾아주고 수군을 재정비했다. 이렇게 비축한 힘으로 이순신은 예하 장병들과 노랑해전에서 용맹을 떨쳐 사무라이의 총칼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원한 것이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의 신임을 보고 이를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처럼 이순신은 조선 백성의 관음이었다.

한참동안 ‘이슬방울이 맺은 다리’, 노랑(露梁)을 바라봤다.

이번 충무공 이순신의 노랑대첩 전적지 답사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정왜기공도병〉 덕분에, 순천왜성 전투 - 노랑해전 - 남해도 왜군 섬멸 등의 전체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의 모습도 ‘그날처럼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석축 위에 순천왜성 천수각을 세워보고 매립된 땅도 바다로 바뀌 이순신의 전함을 띄워봤다. 창선도에서 쫓기던 왜군과 남해왜성에 오른 장량상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랑에서 처절하게 맞이한 삶의 최후 순간에도, 자신보다 나라를 걱정했던 위대한 성웅 이순신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598년 정유재란이 끝나고 312년 만인 1910년 한일늑약이 체결되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의 아픔을 겪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날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인 일본은 일제 침략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다.

관음포에서 노랑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경계하여 우리 역사의 치욕이 반복되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했다.